



인도네시아 내 한인 기업들의 모임인 재인도네시아 한인상공회의소(코참) 6대 회장단이 출범했다.

MONTHLY KOFA

코파의

칭찬

Tel. 021-3002 9090, 0821 1122 8827 E-mail : indokofa@gmail.com
Add : Jl. Imam Bonjol No. 75, Panunggan Barat, Kec. Cibodas, Karawaci Tangerang 15139

Vol. **94**
2022/07

이젠 싱그러움으로



KOFA 재인니한국신발협의회
KOREA FOOTWEAR ASSOCIATION

인니 정부, 연말까지 코로나 관련 세제 혜택 단계적으로 폐지



인도네시아 정부는 올해 말까지 코로나 팬데믹 중에 도입한 많은 세금 인센티브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재무부 재정정책처(BKF) 페브리오 나판 까짜리부(Febrio Nathan Kacaribu)처장은 많은 산업이 반등했고 실업률도 하락하고 있어 올해 말까지 대유행 기간 동안 도입했던 많은 세제 혜택을 중단할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인도네시아 통계청(BPS)에 따르면 1월부터 3월까지 국내 총생산(GDP)은 전년 동기 대비 5.01% 성장했고, 실업률은 작년 같은 기간의 6.26%에서 2월에 5.83%로 감소했다. 이번 결정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서방국가들의 보복 제재가 글로벌 공급망을 교란시켜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을 끌어올리고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내려졌다. 동시에 많은 국가의 통화 긴축은 세계 성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심지어 또 다른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023년까지 재정적자를 규정된 3% 이하로 되돌리기 위해 재정 통합을 계속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지난 2020년 3월 대통령은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적자 한도를 초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률(Perppu)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2020년 코로나19가 세계적인 대유행으로 선언된 이후 개인, 기업 및 중소기업

소득세, 건설 서비스세, 수입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 많은 세금 감면을 발표했다. 이러한 인센티브 중 상당수는 기업들이 팬데믹의 경제적 영향을 견뎌낼 수 있도록 2022년 말까지 연장됐고, 다른 조치들은 경제 회복을 가속화하기 위한 희망으로 소비자 수요를 증가시키기 위해 유지되었다. 정부는 이러한 인센티브의 범위와 대상 수혜자의 수를 줄이기 시작했다. 여러 종류의 소득세 인하는 이번 달에 종료될 예정이며, 3개월 후 새차와 주택 구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인하는 종료될 예정이다. 한편, 페브리오 처장은 정부가 많은 세제 혜택을 종료하고 있지만 법인소득세 22%로 감면, 연매출 5000억 루피아 이하 영세사업자에 대한 비과세, 빠른 세금 환급 등과 같은 일부 세금 혜택은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KOFA 광고를 제안합니다.

KOFA에서는 소식을 통해 영업과 마케팅에 필요한 광고를 받고 있습니다.

1, 개요

주요대상 : 신발업체, 부품업체, 및 기타 관련업체
 광고매체 : 코파소식지(월간)
 특징

- 1) 소식지는 KOFA 전 회원사에 다이렉트 메일로 매월 발송. 관련 회원사 대표님과 그 직원 모두에게 매체 도달률 100%, 가독률 100%의 전문 소식지입니다.
- 2) 전달 하고자하는 정보, 내용을 구체적으로 홍보 할 수 있으므로 설득력이 높습니다.

2, 광고 상품안내

- 1) 연간(12회) 계약 혜택 : 20% 할인, 광고 디자인 무료, 기획기사 1회 취재 및 게재
- 2) 6개월(6회) 계약시 혜택 : 10% 할인, 광고 디자인 무료, 기획기사 1회 취재 및 게재

3, 연락처 및 문의처

KOFA 사무국 : 021-3002-9091 (mr. kang) 0821 1122 8827

인도네시아 노동법 개정 반대 시위 격화... 1천만 노동자 대규모 파업도 불사



▲지난 15일 의회 건물 앞 철조망 설치에 반대하는 시위대(사진=kompas.com/REZA AGUSTIAN)

인도네시아 약 1만 명의 노동자들이 지난 15일 자카르타 스나얀에 있는 의회 앞에서 노동법 개정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시위에 나섰다. 노동당 대표 사이드 익발(Said Iqbal)은 시위의 이유를 다섯 가지로 밝혔다. 첫째, 노동자들은 입법부 구성에 관한 법률 제정(UU P3) 개정을 거부한다. 입법 개정이 법제위원회(Baleg)에서 10일 동안만 논의되었다는 정보를 받았는데 이는 제정 협의가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국민들이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둘째, 고용창출에 관한 옴니버스법은 무기한 계약직 허용, 저임금, 쉬운 정리해고, 낮은 퇴직금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거부한다. 사이드 대표는 고용창출에 관한 옴니버스법은 초안 작성 과정에서 국민들이 전혀 참여하지 않았고 노동자들은 고용창출에 관한 옴니버스법 개정안에 대한 세부항목조차 알지 못한다며 이 법이 형식적으로 결함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입법부 구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고용창출에 관한 옴니버스법을 논의하기 위해 추진되어선 안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창출 옴니

버스법을 지지하는 정당과 정치인에게 투표하지 않도록 하는 캠페인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옴니버스법 제정을 강력 주장하고 있는 의회 부의장과 법률제정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입법부 법률제정위원회 실무진들의 이름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셋째, 선거운동 기간은 75일이 아닌 법에 따라 9개월 간 진행되어야 한다. 마지막 두가지 이유는 가사노동자보호법(PPRT법)의 비준을 즉각 촉구하는 것과 세계 무역기구(WTO) 농업 자유화를 거부하는 것이다. 이날 시위는 의회 앞 철조망 설치를 놓고 의회 앞에서 경비를 서고 있던 경찰과 시위대가 충돌하면서 시작됐다. 시위대는 철조망이 의회 앞에 설치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경찰은 철조망을 계속 설치하기 위해 서로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철조망을 부수려고 시도한 시위 참가자 5명이 경찰로부터 강력한 수준의 경고를 받았다. 해당 시위 참가자 5명은 범죄위반 의도가 입증되지 않아 석방됐다. 사이드 대표는 의회에서 입법부 구성에 관한 법률(UU P3) 개정을 철회하지 않으면 최대 1천만 명의 노동자가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전국 34개 주 주요 4개 연맹, 전국 60개 노조연맹, 인도네시아 농민 노조 등으로 구성된 최대 1천만 명이 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며, 전국 파업은 법률 1998년 9호와 2000년 21호에 의거한 합법적 활동이라고 말했다. [콤빠스닷컴/자카르타경제신문]

HKI PT.HANJIN KONSTRUKSI INDONESIA
HUJ PT.HANJIN INDONESIA JAY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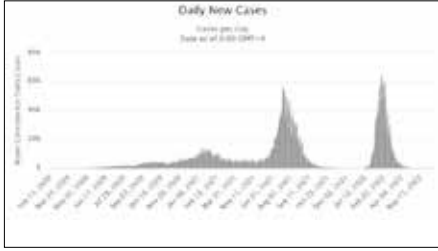
고객의 미래를 함께 건설합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인도네시아 모든 지역에서 한진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플랜트 / 건설 / 토목

Jl. Modern Industry III/4 Kawasan Industry Modern Cikande RT 000, RW 000 Desa / Kel. Nambo Ilik Kec. Kibin Serang Banten
 Tel : (0254) 402323 6 Fax : (0254) 402327
 Email : pthanjin@hanjinind.co.id
 www.hanjinpower.com

인도네시아, 오미크론 세부변이로 ‘4차 확산’ 조짐



▲인도네시아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 그래프 [월드오미터]

인도네시아에서 전파력이 강한 코로나19 오미크론 세부계통 변이가 확산하면서 일일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하는 등 ‘4차 확산’ 조짐이 감지돼 보건 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16일 안타라통신 등에 따르면 부디 구나디 사디킨 보건부 장관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새로운 하위변이 BA.4와 BA.5가 확산하면서 7월 둘째 주까지 확진자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일일 확진자 수가 전날 다시 1천명을 넘어섰으며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사례에 비해 인도네시아의 일일 확진자 수는 다음달 최대 2만명 정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BA.4와 BA.5는 4월 초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처음 발견됐으며, 세계적으로 지배종이 된 BA.2(스텔스 오미크론)보다 전파력이 더 강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보건부는 남아공의 BA.4와 BA.5 변이 확산에 따른 일일 확진자 수가 델타, 오미크론 변이 확산 당시 정점의 3분의 1 정도라고 설명했다.

인도네시아는 오미크론 확산

당시 일일 확진자 수가 최고 6만 명대였던 점을 감안해 이번 4차 확산에 따른 일일 확진자 수가 2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부디 장관은 BA.4와 BA.5 변이가 처음 확인되고 한 달 뒤 확진자 증가세가 정점을 찍고 내려올 것으로 본다며 7월 3~4주가 되면 일일 확진자 수가 다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 “BA.4와 BA.5 변이의 치명률이 델타 변이, 오미크론 변이 대비 10분의 1 또는 12분의 1 수준으로 훨씬 낮다”고 강조했다.

인도네시아 보건부는 이달 10일 BA.4와 BA.5 변이가 각각 1건, 3건씩 처음으로 검출됐다고 밝혔다.

보건부는 이달 14일 기준으로 BA.4와 BA.5 변이 검출이 각각 2건, 18건으로 늘었다며 3명은 외국인이고 나머지는 17명은 지역 감염자였다고 발표했다.

외국인 감염자는 모두 발리에서 확인됐으며 내국인은 서부 자바 12명, 자카르타 4명, 반튼주 1명으로, 이들 가운데 1명만 입원했고 나머지는 증상이 없거나 가볍다고 덧붙였다.

인도네시아의 일일 확진자 수는 작년 1월 1차 확산 때 1만4천명, 작년 6~7월 델타 변이 발 2차 확산 때 5만6천명, 올해 초 오미크론 변이발 3차 확산 때 6만4천명까지 각각 늘었다.

[연합뉴스]

재인니 한인상의 신임 회장단 출범... “급변하는 환경에 비전제시”



▲제6대 코참 출범식 단체사진 (사진=코참 제공)

인도네시아 내 한인 기업들의 모임인 재인도네시아 한인상공회의소(코참) 6대 회장단이 출범했다.

29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물리아 호텔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이강현 신임 회장은 “자원 강국인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 경제 상황 변화와 내무로는 대선, 총선 등을 앞두고 있어 정부 정책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며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해 인도네시아 전문가로서 정확한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인도네시아 정부는 물론 현지의 여러 경제 협력단체와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미국 상의 등 외국 상의들과도 협력해 기업하기 유리한 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출범식에 참석한 박태성 주인도네시아 대사는 “한국 대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이 늘어나고 있다”며 “중소기업과 현지 한인 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도록 코참이



▲(왼쪽부터) 박재한 한인회장, 송창근 전 코참 회장, 박태성 대사, 이강현 신임 코참 회장이 떡케이크 커팅식을 하고 있다 (사진=코참 제공)

가교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코참은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한인상공인을 대표하는 단체로 인도네시아 진출한 한국 기업들과 한인이 세운 현지 기업 등 총 222개사가 회원사로 가입돼 있다. 이 회장은 1·2대 회장인 승은호 코린도그룹 회장과 3·4·5대 송창근 KMK그룹 회장과 달리 전문 경영인 출신으로 삼성전자 인도네시아 법인 부사장을 거쳐 현재 현대차 아태권역본부 부분부장을 맡고 있다.

한편 코참의 송창근 회장은 이임사에서 지난 9년간 한인기업의 질적인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고 최선을 다함시다, 열정을 다함시다, 기쁨으로 합시다” 그러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임사에서 지난 9년간 한인기업의 질적인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고 최선을 다함시다, 열정을 다함시다, 기쁨으로 합시다” 그러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www.f1-logix.com

인도네시아의 새벽을 여는 기업!

Leading Logistic Provider

4PL

항공, 해상운송

내륙운송

통관대행

물류 컨설팅

물류 OS

W&D 사업

F1 LOGIX

Wisma Korindo 9th FL,
Jl. MT. Haryono Kav. 62
Jakarta, 12780, Indonesia

Telp. : +62-21-797-6237
Fax : +62-21-797-6015
E-mail : kor@f1-logix.com



인도네시아, HS코드 개정...수출입 진행 시 코드 재확인 필요 새로 추가된 선박 부품 111개, 관세율 0%

무역 발전을 위한 전략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특히 선박 부품에 대한 개정에 주목했다. 인도네시아의 재정정책 자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조선기자재 수입보다 중고선 수입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선박 부품에

대한 수입 관세는 0%다. 이는 수입 부품을 이용한 선박 생산량을 증가시켜 인도네시아 조선 산업의 생산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전기 자동차의 HS코드도 추가했다. 보고서는 '인도네시아가 부

가가치 창출과 패러다임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면서 '이번 인도네시아 HS코드 개정은 2017년 버전과 상이한 품목이 일부 있다. 국내 기업은 인도네시아로 수출입 진행 시 HS코드 재확인을 권장한다'고 당부했다. 산업일보

인도네시아가 대외 무역거래 상품을 총괄적으로 분류하는 HS(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코드를 개정했다. 대한 무역 투자 진흥 공사(KOTRA)의 '인도네시아, HS코드를 재분류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가 올해 자국의 HS코드인 BTKI(Buku Tarif Kepabean Indonesia) 분류체계를 개정하면서 코드 수 1만1천552개를 기록, 기존 2017년 버전 대비 5.6% 증가했다. HS코드는 무역거래 상품을 숫자코드로 분류한 국제 협약이다. 상품분류 체계를 통일시키고 관세율 적용에 일관성을 유지하는 등 원활한 교역 촉진을 위해 1998년 세계 관세기구(WCO)가 공표한 것으로, 계약국은 모두 HS코드를 사용해 무역 품목을 분류한다. 모든 국가는 6자리까지 코

드를 동일하게 사용하고, 최대 10자리까지 각국의 상황에 맞게 운영할 수 있다. 한국은 HSK(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분류체계를 총 10자리까지 세분화해 운영 중이며, 인도네시아는 BTKI 분류체계를 통해 8자리의 HS코드를 사용한다. HS 품목분류표 개정은 ▲무역거래량 변화에 따른 품목 코드의 신설 또는 삭제 ▲국제기구 또는 특정 국제협약사 무국의 요청에 따른 개정 ▲신상품 또는 신기술과 관련한 무역환경 변화 반영 등에 따라 정한다. 인도네시아가 이번에 개정된 BTKI는 올해 1월부터 시행하는 WCO의 'HS 개정'과 아세안 회원국에서 채택하는 'AHTN(아세안 통일 관세 명명법)'을 반영했다.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2022 BTKI를 통해 그동안 다루지 않았던 인도네시아 자국 산업 및

인도네시아 무역부는 인도네시아-한국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IK-CEPA)의 비준이 7월 국회에서 승인될 것으로 전망했다. 23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무역부 국제무역협상국장 아리 사프리아(Ari Satria)는 지난 21일 부처 언론브리핑에서 "이번 7월 하원 본회의에서 이 조약이 비준되고 2022년 하반기에는 이 조약이 발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인도네시아-한국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IK-CEPA)이 양국의 경

인니 무역부, 한-인니 CEPA 7월 비준 전망 11,000개 인니 제품 관세 없이 한국으로 수출 가능



▲지난 21일 중부 자바 스마랑에서 열린 'IK-CEPA 국제 무역 협상 결과의 설명회'에서 제리 삼부아가(Jerry Sambuaga) 무역부 차관이 연설하고 있다(사진=인니 무역부 홈페이지)

제 성장과 교역, 투자 확대를 위한 새로운 기회라고 전망하고 있다. IK-CEPA는 특히 상품 시장 관련해서 인도네시아는 92%의 관세를 철폐하고 한국은 95%의 관세를 철폐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2일 비즈니스닷컴에 따르면, 제리 삼부아가(Jerry Sambuaga) 무역부 차관은 중부자바 스마랑에서 열린 'IK-CEPA 국제 무역 협상 결과의 설명회' 기조 연설에서 "IK-CEPA는 양국의 경제 성장, 교역 및 투자 확대를 위한 새로운 기회다. IK-CEPA가 비준된다면 우리나라 제품 11,000개가 관세 없이 한국에 들어가게 된다. IK-CEPA에서 얻을 수 있는 특별하고 실질적인 이점"이라고 말했다. 또한 제리 차관은 "투자 부문을 보자면,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투자가 확대되어 고용 문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도네시아와 한국은 또한 농업, 어업, 임업, 교역 절차, 인프라, 정보기술, 문화, 중소기업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협력하고자 한다. 제리 차관은 "IK-CEPA는 인도네시아의 거시경제적 성과 향상, 인도네시아 제품 및 서비스의 시장 접근 및 수출 확대, 유리한 비즈니스 환경 조성 등 많은 이점을 제공한다"며 "기술 지원 및 지식

이전을 통한 인도네시아 경영의 다양화, 중소기업의 역할과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IK-CEPA는 지난 2020년 12월 18일 양국이 서명하고 한국은 2021년 6월에 비준했지만 인도네시아에서는 의회 절차를 밟고 있다. 참고로 2021년 인도네시아와 한국의 총 교역액은 184억 달러로 집계됐다. 이 중 인도네시아의 대 한국 수출액은 89억8000만 달러에 달했다. 한편 한국으로부터 인도네시아 수입액은 94억2000만 달러에 달했다. 한편, 2022년 1월부터 3월까지 인도네시아와 한국의 총 교역액은 60억9000만 달러에 달했다. 인도네시아의 대 한국 수출액은 31억1000만 달러를 기록했고, 한국으로부터 인도네시아의 수입액은 29억8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인도네시아의 비석유 및 가스 부문의 주요 수출 품목은 석탄, 구리, 식물성 기름, TV 신호 송신기 및 암모니아이다. 한국으로부터의 비석유 및 가스 부문의 인도네시아 주요 수입 품목은 전자부품(메모리), 전자부품, 유조선, 전자부품(프로세서), 프로필렌이다. [비즈니스닷컴/자카르타경제신문]

세계로 수출하는 산업용 보일러

삼호 보일러

소각 스팀 보일러

- 용량 : (0.5T/H~5.0T/H)×1.0Mpa
- 연료 : 석유 / 목재 / 중유 / 석탄

노통 연관식 보일러

- 용량 : (1T/H~15T/H)×1.0Mpa
- 연료 : 경유, 가스, 중유

입형 연관식 보일러

- 용량 : (0.1T/H~2.0T/H)×1.0Mpa
- 연료 : 경유, 가스, 중유

- 석유, 봉재, 신발, 기타 산업용 보일러
- 보일러 Maintenance(세관작업, 보수관리, 청관제)

인도네시아 공식 대리점

株式会社 三湖보일러
SAMHO BOILER CO., LTD.
www.samhoboyler.com

PT. YUSUNG JAYA ABADI

자카르타 : 유인대 Hp : 0811 834 398 E-mail : hanshinyu@hotmail.com
Tel : 021.5980.222 / 5982.666
한상윤 Hp : 0822 9999 1447 Fax : 021.5984.666
Ruko Tataka Puri Blok C1 No. 25 Jl. Curug Raya Bitung Tangerang 15810

스마랑 : 정연오 Hp : 0815 1938 0006
Jl. Setrekan-Pentol, Troso RT 007 / RW 010,
Kec. Pecangaan Kab. Jepara, Jawa Tengah, 59462.

인니 가정용 전기요금 약 18% 인상...7월 1일부터



▲반트 주 땅으랑 지역의 송전탑 (사진: 자카르타경제신문)

인도네시아 정부는 3,500볼트암페어(VA) 이상에 해당되는 일부 일반 가정과 정부기관용 전기요금을 7월 1일부터 인상할 것이라고 13일 공식 발표했다.

13일 콤포스닷컴 등에 따르면, 정부는 3,500VA 이상 사용하는 일반 가정(R2, R3)과 정부기관(P1, P2, P3)에 대해서만 인상된 전기 요금을 적용할 방침이다.

에너지광물자원부 전기국장 리다 물야나(Rida Mulyana)는 전기요금 인상에 적용되는 부유층 가구와 정부기관은 약 250만이며 PLN 전체 고객의 3%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한편, 900-2,200VA 전력을 사용하는(R1) 저소득층과 중소기업 및 산업체에 대해서는 전기요금 인상이 적용되지 않는다.

전기요금은 에너지광물자원부령 2016년 28호와 2020년 3호에 따라 4가지 거시적 가정 지표 즉, 환율, 인도네시아 원유평균 가격(ICP), 인플레이션, 석탄지표가격(HPB)의 변화를 참고하여 3개월마다 요금이 조정되는데, 2017년부터 2022년 2분기까지 국민의 구매력과 기업·산업 부문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요금 조정을 자동으로 적용하지 않고 환율 변동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해 왔다.

그러나 최근 4가지 거시적 가정의 지표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전력공급원가(BPP)에 영향을 미치며 결국 전기요금 산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정부가 전기 요금을 인상하지 않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243조 3000억 루피아의 전기 보조금과 94조 1700억 루피아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같은 기간에 3,500VA 이상을 사용하는 부유층도 같은 혜택을 받았고 이들이 받은 보조금만 2017~2021년 동안 4조 루피아에 달한다.

3,500VA ~ 5,500VA 전력 사용 가구(R2)와 6,600VA 이상 전력 사용 가구(R3)는 킬로와트시(kWh) 당 1,444.70루피아에서 1,699.53루피아로 조정되어 대략 월평균 요금이 R2는 111,000루피아/ kWh, R3는 346,000루피아/ kWh 가 증가한다.

6,600VA에서 200kVA의 전력을 사용하는 정부기관 그룹 P1과 P3의 경우 요금이 킬로와트시(kWh)당 1,444.70루피아에서 1,699.53루피아로 조정되며, 월평균 요금은 P1이 978,000루피아/kWh, P3는 271,000루피아/ kWh 가 증가한다.

200kVA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는 정부기관 그룹 P2는 킬로와트시(kWh)당 1,114.74 루피아에서 1,522.88루피아로 조정되며 월 평균 요금이 3,850만 루피아/ kWh가 증가한다.

[자카르타경제신문]

조기조 교수의 경제산책

법을 진찰하라



조기조

법이 많기도 하다. 그러나 법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 얼치기로 시원찮은 법을 만들고도 잘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 대통령은 법과 원칙을 중시하고 나섰다. 법치주의 국가라고 한다. 그러나 법 없이도 살 사람들도 많다. 법을 만들거나 정하는 일을 왜 입법(立法)이라 할까? 법을 세우다니요? 얼마나 많은 법령이 있을까? 그 법을 잠깐 들여다보자. 오늘자로 헌법 1건, 법령 5,189건(법률 1,580건, 대통령령 1,845건, 총리령 95건, 부령 1,308건, 기타, 국회규칙 등 361건)이며 자치법규가 132,197건(조례 103,664건, 규칙 28,062건, 기타, 훈령 등 471건)이다. 그러니까 헌법을 포함한 모든 법령이 137,387건이다.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는 이 모든 법의 전문을 담아서 쉽게 볼 수 있다. 디지털의 힘이다.

신기술이 나오면 법은 따라가기도 벅차고 바빠질 것이다. 그중의 하나가 디지털세다. 구글세라고도 불렀다. 돈은 우리나라에서 벌고 사업장에 해당하는 컴퓨터 서버가 국내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세금을 내지 않는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구글, 넷플릭스,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등과 같은 다국적기업이 몰루 없이 디지털 데이터로 영업하면서 일어나는 문제다. 디지털세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20개국(G20)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합의해 만들었고 130여 개국에서 2023년부터 시행할 예정인데 이렇게 단체로 움직여야 요리조리 빠져 나가지 못한다. 이들은 통신망을 많이 사용하면서도 그 부담은 나 몰라라 한다. 지인이 인터넷 사기를 당해 경찰서에 갔더니 못 잡는다고 포

기하라 하더라. 송금을 했는데 먹고 튀었다고 해도 은행은 그 통장주를 알려 줄 수 없다 하더라.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사기꾼의 정보는 보호 받는다. 이런 법은 못 고치나 안 고치나? 멀쩡하게 다 큰 중학생들이 스마트폰으로 불법 게임을 하고 어른 같이 잔인한 범죄를 저지르는데 어리다고 봐주라고? 소년법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을 '촉법소년'으로 규정하고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내리고 있다. 국민의 99%가 촉법소년의 나이를 12세로 낮추자고 한단다. 이 녀석들 정신 차리게 boot camp 에라도 보내면 좋겠다. 심각한 피해 청소년들이 심적 충격을 받아 인생을 망칠 수도 있다. 자살도 안 하던가? 그런데도 가해자는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보호받는다. 피해자의 인생은 어쩌라고? 학생인권조례는 있어도 교권조례는 없다.

새 대통령은 만인이 다 잘 사는 세상을 만들도록 법을 정비하겠다고 했다지만 기본권인 먹고 주거하는 문제를 큰 걱정 안 하도록 해 주면 좋겠다. 새 정부 1호 민생 대책은 물가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란다. 그런데 이미 물가가 너무 올라버렸다. 법을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물가는 세법을 정비해야 조금이라도 잡는다.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부가세는 왜 항상 10%일까? 너무 높지 않은가? 고급 양주엔 몰라도 서민들이 먹고 마시는 술엔 주세가 없으면 좋겠다. 술의 출고가격에 주세를 붙이고 거기에다 교육세에 또 부가세를 붙인다. 이러니 배보다 배꼽이 큰 것이다. 휘발유나 경유의 가격 중 각종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넘는다.

이건 아니다. 한번 거두면 그만 둘 줄을 모른다. 정부가 일시적으로 20% 내리겠다고 언 발에 오줌 누기다. 입법취지와 안 맞다. 서민의 발에 쓰는 휘발유엔 많은 세금을 물리면서 주식으로 큰돈을 벌어도 양도차익에는 세금을 거두지 않는다. 왜 못하는 걸까? 복지에 평평 쓰고는 세수가 모자라는지 기업의 R&D세액 공제는 줄여나가고 있다. 신제품 개발이 국가경쟁력인데. 국가의 미래가 걸린 낮은 출산율을 해결할 묘법은 없는 걸까? 얼치기로 잘도 만들면서 이런 문제를 왜 미루는지....

영화 '범죄도시2'를 두 시간 동안 흥미진진하게 보았다. 주제는 사필귀정이고 정의와 복수라는 것이다. 뻔한 것 아닌가? 그럼에도 박진감 넘치는 전개와 강력한 주먹에 스트레스를 푼다. 일상이 그렇게 스트레스를 풀 수 있으면 좋겠다. 오늘, 관객 천만을 돌파했다. 이런 시원한 법은 왜 못 만드나? 점심값이 부쩍 올라 굶고 차라리 '범죄도시2'를 또 봐야겠다.

조기조(曹基祚 Kijo Cho)
경남대학교에서 30여 년간의 교수직을 마치고 명예교수로 있다. Korean Times of Utah에서 오래도록 번역, 칼럼을 써 왔다. 최근에 '스마트폰 100배 활용하기'를 내었다.(공저)
현재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이사장으로 봉사하고 있다. (비상근)
kjcho@uok.ac.kr
(82) 10-9080-2449

틈스목금형(틈스발형)

철판 커팅 레이저 신규 가동

- 생산성 향상
- 짧은제작기간
- 정밀성
- 품질 향상
- 경제성



철판,아크릴, 합판, 뼈그라이트등 레이저커팅



종이, 고무, 가죽, 스폰지,아스테이지, PC, 필름등 모든 자재 커팅금형의 최적금형의 대명사 "틈스 목금형"

우수한 첨단장비로(CAD, Laser, Auto Banding)최상의 틈스 목형을 제공하여
신속성, 정밀성, 경제성이 월등하며 신발, 자동차부품, 전자부품 절단, 생산하는데 최상의 칼 금형

PT.BUSAN LASER INDONESIA

DELTA SILIKON 2 JL. KALIANDRA BLOK F6/3D CICAU-CIKARANG PUSAT BEKASI
TEL : (021) 2957 - 7591~2 FAX : (021) 8990 - 5309
H.P : 0812 8815 9157 E-MAIL : busan1144@gmail.com
http://www.bsllaser.com

Steel Laser Cuting, Thomson Mold, Silling Knife

부산 레이저 목형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로 362 (덕포동)
TEL : (051) 637-9791~3 FAX : (051) 637-9790
H.P : 010-3842-3239 E-mail : busan114@korea.com
http://www.bsllaser.com

Steel 레이저절단, 씨링칼, 틈스금형, 특수 칼금형

세계은행, 인도네시아의 금융 부문은 질적 성장 절실



세계은행의 경제학자들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코로나19 대유행으로부터 인도네시아의 경제 회복을 가속화하기 위해 금융 부문을 심화시키는 작업을 할 것을 권고했다.

세계 원자재 가격의 급등과 많은 국가들의 기준 금리 상승으로 인해 이 회복세가 느려졌다고 24일 자카르타포스트가 보도했다.

워싱턴DC에 본부를 둔 세계은행은 22일 가상 언론 브리핑에서 국내 금융부문 자산이 국내총생산(GDP)의 77%에 불과해 주변 개도국에 비해 인도네시아 금융 생태계의 깊이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필리핀과 태국은 각각 121%와 259%인 반면 말레이시아에서는 284%였다.

세계은행은 상대적으로 낮은 자산 가치는 인도네시아의 성장과 지속가능한 개발로의 전환에 효과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능력을 저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은행의 인도네시아 및 동티모르 지역 국장 사투 카코넨(Satu Kahkonen)은 브리핑에서 현대 경제에서, 금융 부문은 경제 활동 확대의 중추로 여겨진다고, 적절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경제성장을 저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학자들은 또한 인도네시아에서 비교적 소규모 금융 부문의 예대마진이 평균 4~5%으로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분야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참고로 필리핀은 3~4%, 태국과 베트남은 2~3%, 말레이시아는 1~2%대였다.

인도네시아의 비교적 높은 순이자 마진은 경제에 제공되는 잠재적인 신용 거래를 저해했고, 이는 결국 국내 저축과 투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카코넨 국장은 인도네시아 금융 부문은 구조적 결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오늘날 금융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계은행은 인도네시아에서 자금조달 비용이 높은 것은 국내 은행 자산의 80%, 금융시스템 자산의 60%가 금융대기업이 소유하고 있어 경쟁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세계은행의 인도네시아와 동티모르 금융부문 이코노미스트인 프란스코 스트롭브(Francesco Strobbe)는 이들 금융대기업은 규제가 미흡하고 제도적 감독이 느슨해 중소기업(MSME)에 광범위한 신용접근권을 제공하기 위한 중개 효율성이 떨어지는 오래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이유로 인도네시아에서 40% 이하로 추정된 민간 신용 대비 GDP 비율에서도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필리핀은 40~60%대로 더 나은 편이고, 태국과 말레이시아는 120~140%대이다. 베트남은 140~160%의 비율로 선두를 달리고 있다. 스트롭브는 실제로 GDP 대비 민간신용비율을 살펴보면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비율의 국가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은행은 세 가지 조치를 제안했다: 금융 수급 확대, 금융권 자원 배분 개선, 충격에 대비한 금융시스템 강화 등이다.

먼저 금융수급 확대는 실사를 지원하는 데이터 플랫폼 구축, 새로운 금융시장 상품 소개, 기관투자자들의 저축을 통해 촉진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다음 배분 개선은 위험 기반 가격 책정을 채택할 수 있는 대출 기관의 능력을 강화하고 비공식적인 구조조정을 장려함으로써 개선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충격 완화는 금융감독자에 대한 강력한 법적 보호, 자금 조달 약정의 명확한 해결 및 재해 보험 시장의 확대를 통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스트롭브는 이어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당시 구상돼 현재는 업데이트가 필요한 과산화물 개정을 통해 법적 틀을 업데이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무부 금융정책처 거시경제정책국장 압둘로만(Abdurrohman)도 같은 자리에서 인도네시아의 금융부문이 주변국들에 비해 열악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들이 다양한 종류의 금융 상품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금융 문화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압둘로만은 높은 금융 문맹률이 연기금과 보험 같은 비은행 부문을 저개발로 이끌었다고 말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한국수입협회, 인니 국영은행 BNI와 협력 관계 구축

한국수입협회는 23일 강남 코엑스에서 열린 수입상품전시회에서 인도네시아 국영은행 BNI와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측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양국 간 교역 확대를 위해 양국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무역사절단 교류, 각국 기업 대표단 방문 시 B2B(기업 간 거래) 만남 지원, 양국 기업 간 네트워크 지원을 통한 정보 교류 확대 등을 추진한다.

김병관 수입협회 회장은 “실



▲한국수입협회, 인도네시아 국영은행과 업무협약 체결 [한국수입협회 제공]

질적인 협력 강화를 위해 오는 10월 대규모 구매사절단을 인도네시아로 파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NI는 인도네시아 4대 국영은행 중 하나로 2016년 인도네시아 은행 중 최초로 서울 사무소를 설립했다.

[데일리인도네시아]

인니 자카르타 대기오염 또 세계 최악... 건기 속 산불 잇따라

인도네시아의 건기가 본격화되면서 수도 자카르타의 대기오염 수준이 또다시 세계 최악을 기록했다.

20일 오전 8시 기준(현지시간) 스위스 공기질 감시업체 아이큐에어의 대기오염지수(US AQI)를 보면 자카르타가 180을 기록, 전 세계 94개 주요 도시 가운데 가장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US AQI는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일산화탄소, 아황산가스, 이산화질소, 오존 등 6개 대기오염물질을 기준으로 산출된다.

US AQI는 ▲ 양호(0~50) ▲ 보통(51~100) ▲ 민감군에 나쁨(101~150) ▲ 나쁨(151~200) ▲ 매우 나쁨(201~300) ▲ 위험(301~500) 등 6단계로 나뉜다.

자카르타의 현재 초미세먼지(PM 2.5) 농도는 111 $\mu\text{g}/\text{m}^3$ 로,

세계보건기구(WHO)의 연간 공기질 가이드라인보다 22.2배가 높다.

자카르타 수도권의 공기질은 매년 6월 건기가 시작되면 급속도로 나빠지며, 특히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해에 최악을 기록한다.

자카르타의 대기오염지수는 이달 14일부터 계속 ‘나쁨’을 기록 중이다.

자카르타 중앙법원은 자카르타 수도권 시민 32명이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 아니스 바스웨단 자카르타 주지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대기오염 소송에서 시민들 손을 들어주고 ‘개선 명령’을 내렸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석탄 화력 발전소 신규 건설을 중단하기로 했고, 2040년부터 전기 오토바이만, 2050년부터는 전기 자동차만 판매하도록 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한가지라도 흔들리면 위험합니다

인도네시아 건설환경에 최적화 되어있는 **신화**는 고객의 마음에 신뢰를 심어주는 건설기업입니다.

한국기업의 인도네시아 성공전략을 **신화**가 함께 하겠습니다.

Electrical, Mechanical, Construction,
Fire Fighting Total Solution,
Factory Control Consultant

PT. SHINHWA TECHNO PLANT

Kawasan Industri Jababeka II
Jl. Industry Selatan 8 Blok EE-6P Cikarang,
Bekasi 17530 Indonesia
Tlp. 021-8984-1283 Fax. 021-8984-1284
Email. shinhwatechno0408@gmail.com

“세계 대학생과 교류로 ‘경쟁력’ 높여요” ... 한국신발산업 글로벌 ‘서포터즈’ 출범



한국신발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과 실질적 협업을 원하는 세계 대학생들로 구성된 ‘글로벌 서포터즈’가 공식 출범했다.

신발산업진흥센터는 지난 5월 30일 ‘한국 신발산업 글로벌 서포터즈’를 선발해 발대식을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서포터즈는 미국 콜로라도의 덴버 메트로폴리탄 주립대, 부산대, 동아대 등 국내외 대학생 19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특히 ‘신발 기업 및 신진 디자이너와 협업’을 할 수 있는 워크샵 프로그램에 큰 매력을 느껴 지난 지원과 심사를 통해 선정된 재원들이다.

신발산업진흥센터는 지난 5월 4일 지역기반 신발기업, 패션 신진디자이너, 국내외 학생을 1팀으로 구성해 디자인 개발에 참여할 서포터즈를 모집한다고 공고한 바 있다. 이들은 워크샵 외에도 오는 11월까지 △기업 브랜드 홍보 △부산국제신발디자인 공모전 참가 등의 활동을 펼치게 된다.

눈길을 끈 워크샵은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진행됐다. 덴버대 학생들과 국내 학생들은 △디자인개발 프로젝트 △커스텀슈즈메이킹 체험 △우수 신발기업 현장견학

등의 활동을 이어갔다.

또 가장 핵심적으로 신발 디자인 협업개발 프로젝트에 신발기업 및 부산 패션 디자이너, 학생들과의 ‘합동’ 프로젝트도 이어졌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기업은 총 7곳으로 △민주화한복 △인더메이킹 △우브 △강정석 △필로티랩 △크리스티컴퍼니 △디자인 부산 등이다.

이민봉 크리스티컴퍼니 대표는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덴버대 학생들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 신발을 디자인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들이 다르게 느껴져서 신선했다. 서포터즈들이 젊다보니 브랜드 평가도 해 줬고, 제품에 대한 피드백을 가감없이 했던 점도 좋았다”며 “이번에 같이 작업했던 친구들 중 가능하다면 2023 SS 신제품 디자인 개발도 같이 해볼까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크리

스틴컴퍼니에 아이디어를 제공했다고 밝힌 임채은 동아대 산업디자인 학생은 “실제로 학생들이 실무자를 만날 기회가 없는데, 아이디어 말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이 소중하고 좋았다”고 말했다. 다른 기업과 협업한 서포터즈 박정은 동아대 산업디자인 학생은 “신발디자인에 대해서 모르는 상태로 지원을 했는데, 프로젝트에서 이론도 배우면서 실무를 경험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했다. 한편, 서포터즈를 선발하고 다양한 프로젝트를 마련한 신발산업진흥센터의 안광우 소장은 “부산 신발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혁신적 신발 디자인과 기술개발을 위한 지속적 지원이 필요하다 생각한다”며 서포터즈의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했다.

[부산제일경제]

화승엔터, 인도네시아서 인재 채용... 현지화 전략 박차

바탕간 공장 직원 1만5000명 단계적 채용
스포츠 의류업 진출...매출 5년 내 3배 확대

화승엔터프라이즈가 인도네시아에서 인재 채용에 나선다. 생산라인 증대에 글로벌 주요 거점으로 인도네시아의 중요성이 커지자 현지화 전략에 나선 행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화승엔터프라이즈 자회사 PT 화승인도네시아는 바탕간 지구(Batangan District) 공장 직원 1만5000명을 단계적으로 모집한다. 다음달 채용이 시작되며 연내 지역 인재 2500명 충원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PT 화승인도네시아가 인재 채용에 나선 이유는 스포츠화 생산을 확대해 9월부터 수출량을 늘리기 위해서다. 현지 채용인을 중심으로 철저히 현지화 전략을 실행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다. 생산 및 품질관리 영역에서 오랜 시간 쌓아온 화승엔터프라이즈의 경영 노하우를 인

도네시아에 전수해 현지 채용인을 관리자로 양성하는 등 완벽한 현지화를 이루는데 집중한다.

화승엔터프라이즈는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등 해외 공장에서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아디다스 스포츠화를 생산하는 신발 제조업자개발생산(ODM) 회사다. 아디다스의 2위 공급사로 알려져 있다. 최근 아디다스로부터 수주받는 생산 물량이 증가하면서 매년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 스포츠 의류 사업 진출로 매출액을 5년 안에 3배가량 확대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유진투자증권에 따르면 올해 화승엔터프라이즈의 전체 매출액은 전년 대비 31.9% 늘어난 1조5000억원, 영업이익은 983.5% 증가한 769억원으로 전망된다.

아웃도어 브랜드 ‘토포’, 전사적으로 친환경 이니셔티브 도입

탄소 발자국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 기업에게 ‘지속가능성’이라는 말은 “적을수록 더 좋다”라는 구문을 떠올리게 한다. 그렇다면 러닝화 브랜드는 제품에 적은 소재를 사용하면 디자인과 기능성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

토포(Topo)의 경우 그 답은 단순하다. 불필요한 특징을 추가하지 않는 것이었다. 그 결과, 이 회사는 러너에게 보다 자연스러운 느낌의 풋웨어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소재 선택, 제품 수명, 유통 물류 및 전반적인 기업 실무의 균형을 맞춰 매우 전체주의적인 접근법을 취했다”고 토포의 러스 스티븐스

(Russ Stevens) 제품 매니저는 설명했다.

토포는 소재의 지속가능성과 내구성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선별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는 러너들이 신발을 자주 교체할 필요가 없는 오래 지속되는 제품을 만들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소비를 줄이는 것만이 토포의 환경 이니셔티브는 아니다. 이 브랜드는 친환경 소재를 인솔에 사용하는 등 신제품 라인을 출시했다. 친환경 인솔은 재활용 고무와 산업 후 폐기물로 구성된 것으로 재활용 소재가 30%를 차지한다.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려는 이 같은 움직임은 제품뿐만 아니라 토



포 공급망의 다른 모든 측면에도 적용된다.

“기업 및 물류 수준에서, 당사의 영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공급망의 지속가능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기 시작했다” 스티븐스 매니저는 설명했다. “5월에는 염료 사용을 최소화하고 100% 재활용할 수 있는 친환경 신발 상자도 출시했다.”

제품에서 필요하지 않은 소재, 장

식, 디자인을 제외하고 재활용 가능한 소재를 사용하는 것이 토포의 우선사항이다. 환경 보존을 위한 토포의 노력은 공급망을 넘어 서고 있다. 다양한 기관과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가능한 한 상당량의 폐기물을 줄이려고 하고 있다. 환경단체인 ‘컨서베이션 얼라이언스(The Conservation Alliance)’의 회원이기도 한 토포는 매년 지구의 날마다 수익의 일부를 기부하고 있다. 하지만 토포는 지속가능한 브랜드를 구축하는 첫 단계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Running Insight



산업용 윤활유 전문대리점

PT. YUSUNG JAYA ABADI

구) PT. YUCOM JAYA MANDIRI

고객과 함께 한 18년!

신뢰와 감동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산업용 윤활유 전문대리점

PENZSTAR, AGIP

순정 OIL만 취급
일반 윤활유 상시 보유
48시간 이내 배송




Ruko Tataka Puri Blok C1 No. 30, Jl. Curug Raya Pos Bitung Tangerang 15810
Telp : 021 598 0222, 021 598 2666 Fax : 598 4666
유인대 : 0811 834 398 E-mail : hanshinyu@hotmail.com

나이키 ISPA에서 3가지 부재를 접착제 무사용으로 연결한 간단 분해 ‘나이키 ISPA 링크’ 등장

나이키 재팬은 착용해서 기능을 활용한 후 분해해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새 ‘나이키 ISPA’ 모델을 선보인다.

ISPA(Improvise:즉흥, Scavenge: 자원 및 폐기물의 유효 활용, Protect: 보호, Adapt: 대응)이란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것을 만들고자 하는 나이키의 디자인 이념이자 실험적 시도다. 이번에는 나이키의 자원 순환 비전에 맞춰 지구와 스포츠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폐기물을 발생시키지 않는 시스템 실현을 지향하고 있다. 그 결과 나이키의 이노베이션 파워와 미래 순환적 디자인의 실현을 느끼게 하는 완전히 새로운 2종류의 풋 웨어가 탄생했다.

30년 이상 나이키의 각 팀에서는 애슬리트(여기에서 말하는 애슬리트란 나이키의 공동 창업자 빌 바우워만 씨의 말 “IF YOU HAVE A BODY, YOU ARE AN ATHLETE(신체만 있으면 누구나 애슬리트다)”를 가리킨다)과 지구를 위한 디자인 솔루션을 추구해왔다. 새로운 환경 부하를 억제한 소재인 나이키 그라인드와 나이키 에어 그리고 재활용 소재를 활용하면서 최고 성능을 발휘하는 풋 웨어 ‘알파플라이 벡스트 네이처’, 인상적인 라이프 스타일 아이템인 ‘2022 Move to Zero 컬렉션’도 개발했다.

ISPA팀은 이번 시즌에 순환 디자인 요소 중 ‘분해’ (소재의 재활용을 위해 손쉽게 분해할 수 있는 프로젝트)로 눈을 돌렸고 풋 웨어 디자인을 통해 실현하기로 했다. 좋은 신발은 굴곡성과 내구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특성을 지금까지는 접착제 등을 사용해서 만족시켜 왔으며 분해나 재활용을 통해서 아직 시도된 적이 없었으며 거의 불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었다.

슈즈를 재활용하려면 잘게 절단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에너지 사용이 많아지고 재활용 소재의 용도도 한정되어 버린다. 분해 가능한 슈즈를 만드는 것으로 프로젝트 관련 탄소 배출을 억제하고 새로운 생명으로 순환시킬 가능성을 넓힐 수 있다.

6월에 등장하는 ‘Nike ISPA Link(나이키 ISPA 링크)’는



▲나이키 ISPA 링크

3가지 부재가 접착제 무사용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사용 후에는 분해할 수도 있다. 미드솔의 페그 상태 돌기를 어퍼의 개구부에 삽입해서 조립하면 쾌적함, 안정감, 통기성과 뛰어난 핏감을 가진 슈즈가 완성된다. 이러한 특성은 40명의 애슬리트가 약 200시간 동안 시작품을 착용해 실제로 체험하고 증명했다.

링크는 조립시간이 약 8분으로 제조의 시점에서 봐도 가히 혁명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공정이 심플하다. 기존 스니커의 평균 제조 시간과 비교해도 놀라울 정도로 짧다. 특별 주문 도구의 사용과 미드솔 조립을 위한 장시간 접착 작업 등이 불필요해졌다. 또 슈즈 생산 중에 발생하는 냉각, 가열, 벨트 컨베이어 시스템 등 에너지를 소모하는 공정도 없다.

2023년 초에 발매 예정인 ‘Nike ISPA Link Axis(나이키 ISPA 링크 액세스)’는 ‘ISPA 링크’의 지속가능성을 더욱 진화시킨 것이다. ‘ISPA 링크 액세스’의 100% 재생 폴리에스테르 플라이 니트 어퍼는 ‘ISPA 링크’에 채용한 기존 타입의 소재를 재단, 봉제하는 제조 방법이 아니라 아웃솔에 밀착시키는 정밀한 디자인이며 솔의 TPU는 에어 백 소재 스크랩을 100% 재활용한 원료를 사용했다.

20% 재활용 소재인 TPU 케이지도 도입되었다. 재활용 원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소재의 물리적 특성이 변하기 때문에 재활용 비율을 높이면서도 내구성이나 트랙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케이지를 채용했다.

나이키는 예전에도 분해 가능한 디자인을 선보인 적이 있었다. 2003년 프레스트 클립과 2005년에 산업 디자이너 마크 뉴슨 씨와 협업한 베즈도즈카(NIKE LAB ZVEZDOCHKA) 2005 등의 제품이 바로 분해 가능한 디자인으로 이번 ‘ISPA 링크’와 ‘ISPA 링크 액세스’가 이를 계승하고 있다.

‘ISPA 링크’나 ‘ISPA 링크 액세스’과 같은 과격적인 모델이 충분한 임팩트를 날기 위해서는 이노베이션을 대규모로 전개하는 것이 필수이며 현재 준비 중이다. 나이키에

서는 제품 라인 및 공급 체인 전체를 부감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어프로치를 어디서부터 실현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2025년의 지속가능성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진정한 의미에서 규모의 과위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업계를 초월한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고 프로젝트 재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비즈니스 모델과 인프라의 구축이 필요하다. 따

라서 나이키는 재활용 능력을 향상시키는 파트너 십을 구축하고 수명이 줄어든 프로젝트를 다른 목적으로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현장을 증가시키기 위해 제품 회수 프로그램을 전세계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동시에 ‘ISPA 링크’나 ‘ISPA 링크 액세스’와 같이 대담하고 참신한 디자인을 선보여 기후 변화 대책을 위한 순환 시스템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소비자와 디자인 커뮤니티에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논의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도 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나이키는 2022년 3월 26일에서 9월 4일까지 세계 굴지의 디자인 박물관 중 하나인 ‘Vitra Design Museum(비트라 디자인 뮤지엄)’에서 개최되는 ‘ISPA 링크 액세스’에 이르기까지의 디자인 탐색과 진화의 과정을 소개하고 환경의 지속성을 염두에 둔 혁신적인 디자인을 향한 나이키의 어프로치를 소개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 ‘나이키 ISPA 링크’는 6월 23일부터 SNKRS, NIKE MA5 DSM GINZA 등에서 순차 발매될 예정이다. 가격은 2만 7500원(소비세 포함). 또 ‘나이키 ISPA 링크 액세스’는 2023년 초에 발매될 예정이다.

출처: shoespost.jp

한국 컨설팅

PT. GLOBAL CENTER

20년 전통과 신용의 업체

업무 내역:

1. 현지 법인 설립(PMA, PMDN, 연락사무소)
2. 투자청, 온라인 허가(OSS, NIB-APIU, P)
3. 이타스(ITAS) 및 은퇴비자(LANSIA VISA)
4. 부동산(주택, 사무실, 공장, 건물 등)
5. 무역업무대행(제품, 원부자재소싱 등)

이메일 : ptgcc@hanmail.net 카카오톡 ID: kitas
Tel : 021-5577-6454, 021-551-4891
위치 : 땅그랑 리본 까라와치 루포 피낭시아내
 신축상가 엑셀리스 NO.18 (명가식당앞 상가)

TOILON

ROOF

SINCE 2003

단열재 지붕 벽체 전문생산업체

PT. TOILON INSU PANEL

Jl. Raya PLP Curug - Tangerang
 Telp. (021) 5579 7181 Fax. (021) 5576 9926
 Mobile. 0811 843 211
 Web. www.toilon-insupanel.com

래직한 근로환경은 친환경 단열이 우선!

토일론 단열 지붕의 장점

1. Anti Panas 단열효과
2. Anti Bising 흡음효과
3. Anti Api 난연효과
4. Anti Air / Water Proof 방수효과
5. Anti Fungal, Kimia 항곰팡이, 항산성 및 알칼리
6. Simple and Quick Construction 빠르고 간편한 시공
7. Long Duration 오랜 수명

PROFILE

전제품 8mm Polyethylene Foam 열접착

1. 35mm Trimdek
2. 25mm Trimdek
3. 35mm Spandek
4. Boltless-Seaming Type 110mm (Roll on Site)
5. Boltless-Seaming Type 55mm
6. Genteng Metal (기 외)

저희 회사 전 제품의 철판은 호주가 본사인 PT. NS BLUE SCOPE INDONESIA로부터 공급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제품은 8mm Polyethylene Foam을 열접착 하고 있습니다. Aluminium Foil 부착제품도 생산합니다.

공사건설현장

Parkland Indonesia

Posco Indonesia

미즈노, 모든 제품에 바이오 성분 도입 이니셔티브 추진 중



풋웨어 및 어패럴 브랜드가 친환경을 선택한다는 것은 탄소 발자국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찾는다는 의미다. 지속가능성을 추진하는 것은 러닝화 산업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아직 많은 브랜드가 '친환경'을 사업의 모든 측면에 통합시키기 전이기 때문에 갈 길이 멀기만 하다.

그렇다면 러너는 자신들이 구매할 브랜드가 현재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초보 러너라면 러닝화 브랜드인 미즈노에서 답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브랜드는 올해 말까지 전제 제품 라인에 친환경 및 바이오 성분 소재를 통합할 계획이다.

미즈노는 2021년 재활용 및 바이오 성분 소재를 도입한 F/W 컬렉션을 출시하면서 제품 라인을 바꾸기 시작했다. 그리고 올해 6월까지 북미에 출시되는 모든 제품을 바이오 성분으로 제작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사람들은 하루의 일과가 끝나면 기분이 좋은 제품을 구입하고 싶어 한다"고 티나 댄포스(Tina

Danforth) 제품 매니저는 말했다. 미즈노는 캐스터 오일 씨로 만든 다양한 친환경 소재를 생산하고 있는 아케마(Arkema), 해조류 성분의 지속가능한 소재를 생산하는 블룸(Bloom) 같은 회사 등과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소비자들의 기분이 좋아질 러닝화를 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즈노는 올해 국가삼림재단(National Forest Foundation)과의 파트너십을 연장하고 숲과 초원의 건강을 보존하겠다는 브랜

드 임무를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오 성분 제품 생산과 파트너십 연장 외에, 이 회사는 신발 상자도 전면 재활용할 수 있게 제작하고 염료도 사용하지 않는 지속가능한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모든 사람이 보다 지속적인 브랜드를 원한다고 생각한다"고 댄포스는 말했다.

미즈노의 새로운 신발상자는 재활용이 될 뿐만 아니라 특별한 QR 코드로 홈페이지에서 고객

들이 브랜드의 지속가능성 목표와 보존 노력을 추적할 수 있다. 신발 상자의 변화는 고객을 위해 의도한 것이 아니라 소매업체를 염두에 두고 제작했다.

목표는 소매업체에서 다량의 신발 상자를 쉽게 처리할 수 있게 만든 것이었다. 소매업체에는 늘 상당한 양의 신발 상자가 쌓이게 되는 데 재활용을 할 수 없는 경우 적절하게 처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미즈노의 새로운 신발 상자는 소매업체가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미즈노는 소매업체가 보다 지속가능해질 수 있게 지원하면 더 많은 고객을 유도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소비자가 자신이 구매하는 제품에 관한 의식이 높아지면서, 러닝화 브랜드와 소매업체도 매장 내 지속가능성을 활성화해 더 많은 판매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됐다.

"지속가능성은 사업을 반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다. 그리고 고객에게는 좋은 인상을 심어주고 있다"고 댄포스 매니저는 강조했다.

출처: Running Insight

올버즈가 새로 개발한 SDGs 러닝 슈즈 'Tree Flyer' 발매

탄력성과 경량감이 특징인 미드솔 탑재

올버즈는 지속가능성을 추구한 신기술을 탑재한 'Allbirds(올버즈)'의 러닝 슈즈 'Tree Flyer(트리 플라이어)'를 5월 17일(화)부터 Allbirds 하라주쿠, Allbirds 마루노우치, Allbirds 오사카와 인터넷 숍에서 판매한다.

사이즈는 220~300mm이며 색상은 Buoyant Yellow, Natural Black, Lux Beige, Blizzard로 구성되어 있다. 6월 7일(화)에 Buoyant Orange, Cream Hush이 추가 발매된다. 중량은 269g(270mm)이며 드롭(오프셋)은 8.5mm(앞발: 22.0mm, 힐: 30.5mm)다. 탄소 발자국(제품을 만들기 위해 배출된 kg CO2e)은

16.3kg CO2e이다. 가격은 2만 1000엔(소비세 포함).

Tree Flyer는 새로 개발한 탄력성과 경량감이 특징인 미드솔 'SwiftFoam'을 처음으로 탑재한 5km에서 10km의 러닝에 최적화된 슈즈라고 할 수 있다. 2년 이상의 시간을 투자해 100개 정도의 시제품을 제작한 끝에 완성된 SwiftFoam은 원료를 남김없이 모두 사용해 폐기물을 최소한으로 억제하는 등 원스텝 프로세스를 실현시킨 차세대 생산 기술을 통해 탄생했다. 미드솔의 약 절반을 피마자유를 사용한 바이오 베이스로 제작했으며 기존 공법보다 탄소 발자국을 20%나 절감할



수 있었다.

또 Tree Flyer에는 'same-shoe 리사이클 프로세스'도 도입하고 있다. 이는 미드솔을 제작할 때 발생하는 폐기물을 거의 100% 힐 카운터에 재이용하는 방법이다. 미국에서는 폐기 플라스틱 중 실제로 리사이클에 사용되는 것은 8% 정도에 그친다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올버즈는 폐기물이 언젠가 다시 재활용될 것이라고 막연하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재활

용하는 행동력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Allbirds의 공동 창업자이자 공동 CEO인 팀 브라운 씨는, "Tree Flyer는 기술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진정성 있는 성과를 달성했다. 전문지식, 근면함, 비전이 조합되면 시너지 효과로 이노베이션이 일어난다는 것을 증명했다. 나는 전직 프로 스포츠 선수로서 고품질의 슈즈가 얼마나 자신의 퍼포먼스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 잘 알고 있다. 슈즈를 석유 유래 플라스틱으로 만들 필요는 없다. Allbirds는 지구에게 정말 좋은 러닝 슈즈를 만들고 동시에 러너의 퍼포먼스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출처: shoespost.jp



LED등의 모든것

놀라운

비교할 수 없는 가격!



Jakarta Office

Plaza Kenari Mas
Jl. Kramat Raya No. 101, RW. 1, Paseban,
Kec. Senen, Kota Jakarta Pusat,
Daerah Khusus Ibukota Jakarta 10440
Telp: +6221-3104414

Cikarang Warehouse

Jl. Industri Utara 4 Blok SS 6B
Kaw. Industri Jababeka Cikarang,
Ds. Mekar Mukti Kec. Cikarang Utara,
Kab. Bekasi 17520

Contact Person

kimsk@ptdaehwa.com
0815-1902-4272
shkim@ptdaehwa.com
0811-174-711

LED TUBE T8 18W

Price **Rp. 60.000**
Lumen : 2100 Lm
CCT : 6500K
INPUT POWER : 1 Sisi / 2 Sisi

LED Highbay 100W/150W

Price 150W **Rp. 1.400.000**
Waterproof Class : IP65
Power factor : 0,95
CCT : 6500K

LED FLOODLIGHT 100W/150W/200W

Price 150W **Rp. 555.000**
Voltage : AC 180 - 260 V
Waterproof Class : IP66
CCT : 6500K

LED STREETLIGHT 90W/120W

Price 120W **Rp. 1.500.000**
Waterproof Class : IP65
Luminous Efficiency : 110 lm/W
Power : 120W
CCT : 5700K

LED DOWNLIGHT 6W/12W/18W

Price 12W **Rp. 60.000**
Power : 12W
CCT : 6500K

LED FLAT LIGHT 48W 60X60/120X30

Price **Rp. 400.000**
Size : 60x60 / 120x30
CCT : 6500K

Ex PPN / Jabotabek Price

독일 스포츠웨어 브랜드 아디다스와 미국 레스토랑 체인 와플 하우스(Waffle House)가 협력해 아디다스 투어360 22(Tour360 22) 골프화를 출시했다.

투어360 22 x 와플하우스는 와플 반죽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한 엠보싱 처리 격자 무늬 어퍼가 특징이다. 레이아웃 디자인은 아디다스의 3

아디다스 x 와플하우스 컬래버 골프화 출시

개의 스트라이프와 연결되어 있으며 안감과 동일한 텐 색상으로 처리했다. 이는 마치 완전히 요리된 와플과도 비슷하다. 또한, 화이트 색상의 폼 아웃솔과 메이플 시럽의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 투명하게

반짝이는 브라운 색상의 고무 스파이크모어(SPIKEMORE) 밑창을 적용했다.

마지막으로, 와플하우스의 아이콘인 옐로우와 블랙 색상으로 각 힐 카운터에 로고를 프린트했다.

“와플하우스는 미국 전역에서 유명한 레스토랑이다. 우리는 이번에 이 회사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이 회사의 특징을 제품에 녹여내는 재미있는 작업을 했다”고 아디다스 골프의 메이선 데니슨

(Masun Denison) 글로벌 풋웨어 디렉터는 설명했다.

이 한정판 제품은 남성용과 여성용 사이즈 모두로 출시됐다. 또한, 신발을 넣은 신발 상자를 미니어쳐 와플하우스처럼 디자인했다.

아디다스와 와플하우스의 이번 컬래버 제품은 아디다스 공식 홈페이지와 앱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남성용은 210달러, 여성용은 200달러선이

다. 한편, 아디다스는 다양한 레이블뿐만 아니라 스틸라 매카트니, 퍼렐 윌리엄스 같은 스타들과도 컬래버레이션 스니커즈를 디자인하고 있다. 그리고 올해에도 유명인사 및 구찌 같은 명품 브랜드와의 협업 컬렉션이 예정되어 있다.

출처: Footwearnews.com



한국 점유율 1위!

한신 에어 콤프레셔

콤프레셔하면 한신입니다!



한신 신제품 출시

1. AT 시리즈:
기존 인버터보다 **4%** 더 에너지절약 가능한 모델
2. GRH5G 시리즈:
냉각 성능 **10% UP!!**
오일 함유량 **10% DOWN!**
3. HBH 시리즈: 5~20마력 소형 오일프리

대표 / 유성열 : 0812 8037 0303

TANGERANG Ruko Tataca Puri Block C1No.25 Jl. Curug Raya Pos Bitung Tangerang 15810
Email : hanshin2009@hotmail.com
Telp : 021 5949 4000 / 5949 4222 Fax : 021 5949 4666

담당 / 한상윤 과장 : 0822 9999 1447

JEPARA Ruko, Jl. Gotri Jepara, Ds. Kalipucang Wetan RT. 001 RW. 002 No. 3 & 4. Kec. Welahan Jepara - Jawa Tengah
Email : hanshin2009@hotmail.com
Telp : 021 5949 4000 / 5949 4222 Fax : 021 5949 4666

3대 캐주얼 구두 브랜드 에코, 클락스, 제옥스 중 어떤 게 좋을까?



캐주얼화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캐주얼하고 신고 벗기 편한 로퍼나 신발 겉면에 무늬가 있으면서 세련된 옥스포드 슈즈다.

그러나 캐주얼화라고 하면 그 컨셉이 광범위한데, 편안한 착용감과 함께 어떠한 장소에서 착용해도 어울리는 구두 역시 캐주얼화라고 할 수 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3개 구두 브랜드로는 에코, 클락스, 제옥스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세 브랜드 모두 최고의 편안함을 자랑하는 구두 브랜드로, 자신만의 독창적인 신발 특허 기술을 갖춘 캐주얼 구두 브랜드의 대표 주자이다.

실제로 에코나 클락스, 제옥스의 구두 제품은 정장과 캐주얼을 모두 아우르는 속성이 있어 출근이나 회의 시에도 신을 수 있으며, 평상시에도 캐주얼하게 신을 수 있다. 어디에나 잘 어울리고 탁월한 편안함이 완벽하게 결합된 것이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된 가장 큰 이유라고 하겠다.

다음으로 추천 순서대로 몇 개의 브랜드를 간단히 소개하겠다.

1' ecco (에코)



에코는 덴마크 황실이 지정한 신발 공급업체로 글로벌 일류 신발 브랜드 중 하나이다. 뛰어난 부분은 국제 최고 수준의 독특한 가죽 공예, 뛰어난 방수 기능, 사출 일체 성형 공법, Comfort Shank 유심 기술, Shock Point 아웃 솔 충격 완화 기술 등이다. 발 볼이 넓은 아시아인에게 어울리는 구조로 편안함을 한층 더했다.

이러한 장점 위에 중국 시장을 대상으로 역량을 더한 에코는 국내에서도 입소문과 인지도가 높아 도시 화이트칼라의 추앙과 사랑을 받고 있다.

사진: 에코 Vitrus lii 2021년 가을 비즈니스 정장 남성화 신상



국내에서도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로 최고의 편안함을 자랑하는 영국의 국보급 국민 브랜드인 클락스의 핵심 경쟁력은 “숨을 밟는 듯한 부드러운 착화감”에 있다.

Clarks의 cushion plus 스마트 풋 소프트 아웃솔 기술, cushion soft 신축 쿠션 기술, cloud steppers 가벼운 발걸음 기술, ortholite 오솔레 기술과 같은 아웃솔 기술은 이미 아주 오랫동안 누적되어 왔으며,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Clarks의 정장 남성화는 운동화에 버금가는 편안함으로 국내 시장에서 높은 평판과 명성을 얻고 있다.

3' geox (제옥스)



이탈리아 신발 브랜드 제옥스는 “숨 쉬는 신발”이란 별명이 있다. 통기, 땀 배출, 방한, 방수가 특징이며, 통기 방수 필름과 다공성 밀창 기술이 핵심 기술로써, 땀에 찬 발과 발냄새로 어려움을 겪는 남성에게 매우 좋다. 이탈리아 슬림 슈즈는 세련되고 멋있는 외관으로 발끝으로 우아함이 나타날 수 있게 연출했다.

마지막으로 세 브랜드 외에도 미국 브랜드 락포트도 주목할 만하다. 우수한 편안함과 내구성 외에도 위 브랜드보다 가격면에서 조금 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마라톤을 달릴 수 있는 구두’로 불릴 정도로 미국 신발 브랜드 락포트는 편안함이 뛰어나다. 완충 작용을 갖추고 있는 자체적 아웃솔 기술 외에도 아디다스와 뉴발란스에 인수되는 전후 기간동안 아디다스와 뉴발란스의 스포츠 기술도 흡수했다. 이것이 바로 락포트가 정장 구두의 외형과 운동화의 편안함을 함께 갖추어 세계 곳곳의 직장인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이유이다.

락포트는 국내에서도 600~1000원으로 높지 않은 가격으로 책정되어, 정장 구두를 신으면서 동시에 편안함을 갖추려는 직장인들에게 아주 적합하다.

LF 콜한, 글로벌 스니커즈 편집숍 ‘아트모스’와 협업 제품 출시



LF가 국내에 전개하고 있는 미국 신발 브랜드 ‘콜한(Cole Haan)’이 오는 18일 글로벌 스니커즈 편집숍 ‘아트모스(atmos)’와 협업한 제품을 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업은 콜한을 대표하는 제품인 ‘오리지널 그랜드(Original Grand)’의 탄생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추진됐다. 나이키의 루나솔과 협업으로 첫 등장을 알린 오리지널 그랜드는 인솔과 아웃솔의 혁신적인 쿠션감, 독자적인 ‘그랜드 오에스(Grand OS)’ 기술력이 더해져 보행 시 최적의 편안함을 선사하는 하이브리드형 옥스포드 슈즈다.

2000년 도쿄 하라주쿠의 작은 스니커즈 편집숍으로 시작한 아트모스는 나이키, 아디다스, 아식스 등 글로벌 브랜드와의 협업은 물론 최신 제품의 테스트 출시 및 차별화된 마케팅 등을

통해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멀티샵으로 성장해 왔다. 현재 한국과 미국, 동남아 등 글로벌 시장에 진출해 총 49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협업을 통해 탄생한 오리지널 그랜드 시리즈는 아트모스의 독창적인 감각이 더해졌다. 윤기 나는 회색빛의 스톤 컬러와 스웨이드 소재를 사용하고, 지브라와 레오파드 패턴을 부분별로 다르게 적용해 흔하지 않으면서도 독특한 멋을 완성했다.

여기에 콜한을 상징하는 옐로우 색상을 미드솔과 신발 끈에 포인트로 활용해 브랜드 헤리티지를 강조했다. 이번 협업 제품은 아트모스 온라인 스토어에서 18일 단독 발매되며, 가격은 28만9000원이다.

[아시아경제]

한국건강원



Bawang Merah
 빨간양파즙 최고의 건강 선물
 Rp. 600,000 60팩/Box

양파는 신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건강선물!!!
 각종 질병 예방 및 치료 효과는 물론 각종 성인병의 원인이 되는 비만 억제에도 도움이 되며, 특히 지방 함량이 적고 채소로서는 단백질이 많아 다이어트시 복용하시면 더욱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인삼주 (선물용)

개소주 흑염소 생사탕 자라탕 녹용탕 장어즙 붕어즙 십전대보탕 킹코부라탕 빨강양파즙 포도즙 사과즙 양배추 배도라지 호박즙 비아그라 씨알라스 웅담 저담 사담 여주즙

이슬브 증류액



BULROGEON

고려인삼



Root of Life Korean Ginseng

전 제품 BPOM, HALAL 등 현지 유통법규를 준수하여 수입, 통관된 우수 제품만을 취급합니다

고려홍삼 농축액 시리즈 전 제품 특별할인 판매 실시
 (2021년 10월 1일부터 / 전 제품 쇼핑백을 함께 증정합니다)



홍삼농축액 플러스
 30g (Rp 380,000)
 240g (Rp 1,980,000)



홍삼농축액
 120g (Rp 980,000)
 240g (Rp 1,800,000)



홍삼정
 240g (Rp 880,000)



에브리데이 신제품
 스틱형 고려홍삼 농축액
 (자이리롤과 비타민C 첨가)



에브리모닝
 스틱형 고려홍삼 농축액

홍삼캔 (뿌리삼) Korean Red Ginseng)
 홍정원 Hong Jung Won
 사포니엑스 Saponiex
 지맥스롱 G-MaxLong
 고려인삼차 Korean Ginseng Tea
 고려홍삼차 Korean Red Ginseng Tea
 고려홍삼정차 Korean Red Ginseng Tea
 지드링크 G-Drink

SUNTECH

Making AUTOMATION FACTORY

with **SUNTECH's** Smart technology!

Business Instruction

01. A/S & Spare parts

- One-stop Service 체제 가동
- 각종 재봉기 및 자수기 부품 판매

02. Sewing Machine

- 신발 현장에 최적화된 재봉기 판매
- 현장 합작 특수 재봉기 개발 및 판매

03. Embroidery Machine

- 현장에 맞는 다양한 HEAD 자수기 개발 및 판매
- 신개발 원단에 최적화된 특수 자수기 및 옵션 장치 개발 및 판매



04. Special Machine

- 생산 현장의 생산성 및 효율성 제고 요청 특수 기계 개발 및 판매
- 생산 현장의 슬립화를 위한 다공정 가능 특수 기계 개발 및 판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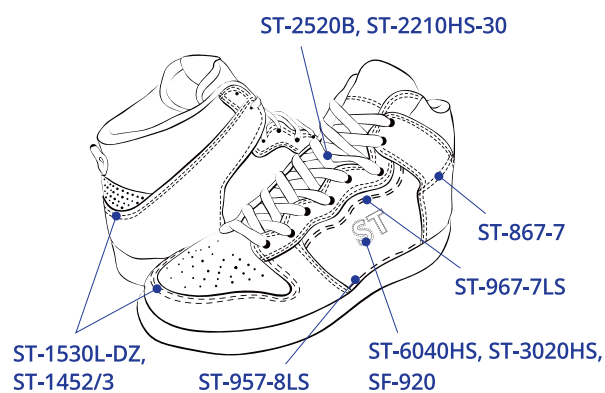
05. Automation Device

- 다양한 Automation Device 개발로 생산 효율성 증대

06. IoT System& Device

- IoT DEVICE 및 SYSTEM 개발로 생산 현장의 빅데이터 생성 및 저장. OEE, KPI 등 각종 데이터 산출 가능한 시스템 개발 및 판매

APPLICATIONS



NEW PRODUCTS



2-칼라 컴퓨터 패턴 재봉기
ST-3020HS-C2, ST-6040HS-C2



3-칼라 컴퓨터 패턴 재봉기
ST-3020HS-C3



자동 땀폭 조절이 가능한 롤러 포스트 재봉기
ST-666H, ST-777H



신발 생산 전용 자수기
SFT-10616



KOREA HQ
(SunTech Co.,Ltd)
- Headquarter
- R&D Center
- Factory

CHINA Corporation
- Shenzhen Factory

VIETNAM Corporation
CHI NHANH CONG TY TNHH
CORING VINA
- HANOI Branch
- HOCHIMINH Branch

INDONESIA Corporation
(PT.WORLD PRIME INDONESIA)
- CIKARANG Branch
- JEPARA Branch

CIKAKANG BRANCH

Ruko Podium Blok A No. 1 & 2 Jl. Mataram,
Lippo Cikarang Kel. Cibatu, Kec. Cikarang Selatan, Bekasi
TEL +62-21-2210-4936~7
H.P +62-811-911-2248 +62-811-179-2248

JEPARA BRANCH

Jl. Jepara-Kudus, Desa Rengging
RT.006 RW.001 Pecangaan, Jepara
TEL +62-291-7520-288
+62-811-911-2284 (Local)